

〈 중국 어학연수 보고서 〉

1. 인적사항

○○○학과 ○학년인 재학생입니다. 중국어 학습기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의 중국어 실력이었습니다. 병음이나 성조를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2. 수학내용

허페이 대학교에서 주로 배운 것은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입니다. 수업은 아홉시에 시작해서 11시 40분까지 중국어 수업이 끝납니다.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1시부터 2시 40분까지 문화수업이 있었습니다.

우선 중국어는 한자, 병음, 성조 세 가지에 집중하여 배웁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챕터 정도를 끝냅니다. 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을 읽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자기소개, 날짜 말하기, 시간 보기, 방향 등등)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판홍선생님, 조호선생님 두 분이셨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판홍선생님은 복습위주의 과제를 내주십니다. 조호선생님은 과제대신에 수업을 끝내기 전에 그 날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십니다. 평가는 구두형식으로 한 번, 간단한 서술형(50문제)으로 한 번 총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수업은 주로 문화체험, 문화탐방, 무술수업 이었습니다. 문화체험을 하는 날은 서예, 전지공예, 매듭공예 등을 했습니다. 문화탐방의 날은 박물관, 산, 공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무술수업은 매주 화요일 2시간 정도 부채를 이용한 쿵푸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수업은 매 수업마다 수업을 진행하는 중국인 학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수업은 중국어 수업보다 자유로운 느낌의 수업이었습니다. 체험이나 탐방은 평가가 없었으나 무술수업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3주 동안 배운 동작을 선생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매주 배운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올려주시고 전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도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3. 기후

날씨는 매우 덥고 습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지치고 땀이 나기 때문에 물이나 이온음료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용 선풍기 또한 필수입니다. 햇빛도 뜨겁기 때문에 양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페이는 7월이 장마라고 하는데 이번 7월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고 며칠은 우산을 쓰나마나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날은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교통

중국에 오고 열흘 정도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나 그 뒤로는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택시비는 기본요금이 8위안입니다. 인타이청이나 완따와 같은 쇼핑물은 보통 20위안 정도 나옵니다. 1912거리나 레이지에 거리와 같은 거리는 많이 나와야 40위안 정도입니다. 20위안 정도 나오는 거리는 저녁에 차가 막히면 30위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탈 때는 초록등이 켜진 차를 잡아탔습니다. 빨간등이 켜진 택시는 사람이 있는 택시입니다. 그리고 택시 정류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도로로 나가서 손만 흔들었습니다. 간혹 초록불이어도 카카오택시처럼 이미 예약자가 있는 택시는 잡히지 않습니다.

버스비는 기본요금이 2위안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국지도어플(baidu map)을 설치하여 알아보고 탔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아이폰에 있는 기본지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라면 저 어플을 깔고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본인이 갈 목적지를 검색하고 대중교통 표시를 누르면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현재 어떤 정류장에 있는지,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내림에 있어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마을버스에는 하차버튼이 없고 매 정류장마다 정차합니다. 또한 환승을 하는 경우에는 2위안을 더 내고 타야하는데 어떤 정류장은 환승할 때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5. 환경

우선 기숙사와 가까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길 건너에 식당가, 작은 마트, 빵 집, 찻집, 노래방, 서점,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학교를 멀리 벗어나지 않아도 길 건너에 위에 나열된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생활이 가능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타고 학교를 벗어나면 가까운 거리(택시비로 20위안을 넘지 않는 거리)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이 대부분 크고 넓어서 옷이나 생활용품 등을 살 수 있고 쇼핑몰 위층에는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있고 지하에는 큰 마트가 있습니다.

6. 기숙사

기숙사는 4인 1실이고 방 2개, 화장실 1개, 주방(가스레인지, 싱크대 있음), 거실이 있습니다. 방은 2인 1실로 쓸 수 있도록 각 방마다 침대와 책상이 2개씩 있습니다.

기숙사에 빨래 건조대와 전신거울, 식탁,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냄비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 칼, 국자 등은 숙소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옷걸이도 3개 정도는 옷장에 걸려있습니다. 옷걸이 5개정도, 본인의 손가락과

젓가락은 한국에서 챙겨오면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칼, 종이컵, 그릇, 휴지, 섬유유연제 등은 중국 가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7. 음식

우선 저의 경우에는 중국 음식이 맛있었지만 너무 기름져서 부담스러웠습니다.

학교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아침으로는 쇼자빙, 점심에는 마라탕이나 화지아미시엔, 저녁에는 꺀바로우, 징장로우스, 차오판, 황먼지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나열한 음식은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많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마라탕을 제외하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마라탕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서 쉽게 추천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주식이 마라탕일 정도로 많이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미스터피자, 피자헛, 맥도날드, KFC 등 프랜차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나열된 음식점을 제외하고 와이포지아(外婆家)를 많이 갔습니다. 중국인들도 많아서 웨이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와이포지아를 검색하고 메뉴추천을 찾아 주문하였습니다. 대부분 새우당면, 탕추리치 등을 추천합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과일이 매우 싸입니다(복숭아 1개에 2위안정도, 하미과 1개에 비싸야 20위안정도). 거의 매일 과일을 먹어도 전혀 부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격도 싸고 한국에는 잘 볼 수 없는 과일이 있어서 새로운 과일을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용과, 납작 복숭아, 용안, 자두, 배, 메론, 리치, 굴 등등 맛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마트에서는 개당 가격으로 과일을 사지만 중국은 무게 당 가격으로 과일을 사기 때문에 마트에서 과일을 산다면 반드시 무게를 재서 가격표를 붙인 뒤 계산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커피대신 차를 많이 마십니다. 공차 같은 차집이 정말 많습니다. 우롱차나 홍차에 생과일(패션후르츠, 망고, 자몽, 수박 등등)을 넣어 만든 음료를 파는 가게도 많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찾을 수 없지만 스타벅스나 큰 쇼핑몰을 가면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크티나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과일음료가 대부분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딜 가나 밀크티와 팥을 좋아해서 밀크티에 팥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음료에 얼음을 매우 조금 넣어주는데 주문할 때 얼음을 강조해서 많이 넣어 달라 해도 조금 넣어주니까 시원한 음료는 기대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8. 소요경비

항공료, 비자, 보험료 해서 573,098원 내고 한 달 생활비로 3000위안(약 530,000원) 지출했습니다.

3000위안정도 환전하면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해도 200위안, 300위안씩 남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돈 남으면 입국하기 전 날에 해결하면 되고 한국에서 다시

환전해도 되니까 적게 환전해오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날에는 핸드폰, 마트, 기숙사 등등 많은 지출이 있습니다.

9. 문화체험 및 기타 관광

허페이에서는 허페이 대학교에 계신 조교님들이 한 달 동안 가 볼 만 한 곳을 정리해주셔서 그 곳을 중심으로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상하이나 황산 같은 관광지는 가이드가 있어서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데 황산은 그다지 살 만한 것은 없고 황산 시에 간다면 꼭 황산을 올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등산을 처음해보고 높아서 겁도 나서 오르는 것을 고민했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안 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았습니다. 상해에서는 만일 차를 살 일이 있다면 한국에서 내가 차를 얼마나 마시는지를 고민하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는 관광지라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 디즈니스토어에서 큰 지출을 할 것 같으면 카드를 챙겨 가면 됩니다.

10. 출국 전 준비해야 할 사항(반드시 소지해야 할 것)

이번 어학연수에서 단체비자를 잃어버린 일이 있어서 입국이 늦을 뻔 했습니다. 본인이 입국하고 바로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개인비자로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Vpn 최소 2개는 핸드폰에 설치하고 파파고와 중국지도 어플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학생증을 챙기면 우선 카드는 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학생증은 관광지 티켓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산 혹은 챙이 넓은 모자, 선크림을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갖고 계시면 반드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개인 숟가락, 젓가락, 포크 정도 챙겨 가시면 기숙사에서 포장해 온 음식 먹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11. 단기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

전반적으로 허페이에서의 한 달간 생활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구경 다니느라 더위도 먹고, 지치기도 했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음식도 맛있었고 특히 밀크티와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온 친구들 중 몇몇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광지에 가면 유리판이 회전하는 원형식탁에서 먹는데 그 때 나오는 음식들이 전부 입에 안 맞아서 2번의 2박 3일 동안 약간 배고프게 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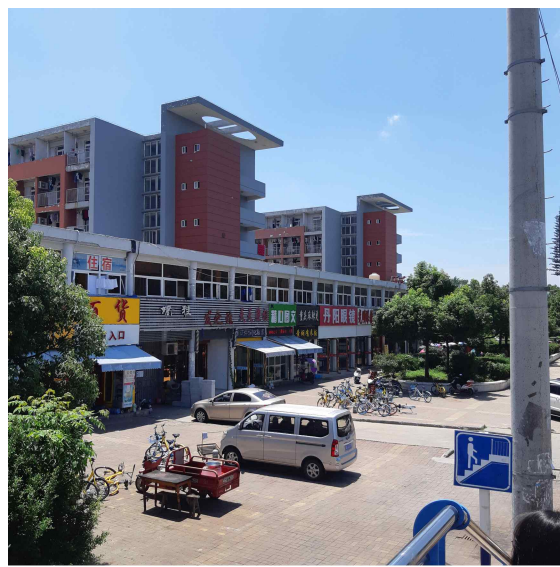
수업은 매주 무술 수업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배웠어야 해서 아쉬웠습니다. 중국 무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찾아볼 정도로 즐겁고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사진첨부)



△ 학교



△ 학교 앞



△ 음식



△ 빵



△차



△마라탕